

월요광장

광주은행 매각 과정 통해서 본 광주정신의 현재와 미래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

필자가 한국의 금융전문가 15인에게 지난 2013년 12월 10일 광주은행의 총 가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주요 요인별 구성비를 질문한 결과는 놀라웠다. 순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32.3%(29.2%)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방은행으로서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가치는 23.2%(21.9%), 지역민에 금융 편의 제공이 17.7%(20.7%), 지역 고용창출과 인자육성이 15.4%,(15.7%), 지역 사회공헌과 지역 민 삶의 질 향상이 11.4%(12.5%)라고 답했다. 꽤나 안은 광주은행 내부 구성원들의 견해로서 전문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수치에 의하면 정부의 광주은행 매각 기준은 순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32%와 지역에 대한 공헌 가치 68%로 평가

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은행의 새로운 소유자는 이러한 32 : 68의 관점에서 광주은행 경영을 전개해야 한다.

이 비율의 숨은 뜻은 지역에 대한 공헌을 올바르게 해야만 순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도 증진될 수 있다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자본의 중요성과 지적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의 선순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경우 이익이 감소되고, 지역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때 경제적 이익도 증진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우리금융지주 매각 과정은 성급하게 진행되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실패했던 우리금융 민영화를 이번 4차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치우고 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매각 이익극화를 위해서 통 매각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의 주장을 뒤집고, 팔리기 쉬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리매각, 증권계열의 분리매각 처리에 열을 올렸다.

적합한 매수자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우리은행의 매각은 마지막으로 3단계로 밀쳐놓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광주은행의 매각은 5200억 원을 제시한 전북은행의 지주회사인 JB금융지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시장은 JB금융에 대해서 '정부

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만큼 잘 한 거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들과 상공인들의 바람은 지역자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환원을 희망했으나, 광주·전남상공인연합 등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본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자아냈다.

물론 경남은행도 지역환원이 아닌 부산은행의 지주회사인 BS금융지주가 1조2800억 원 규모로 우선 협상자가 되어 마찬가지가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경남지역에서는 100만여 명의 도민 서명, 지역상공인, 우리사주, 노동조합, 학계, 시군과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6개월 이상을 총력으로 노력한 것은 이 지역민들에게는 단합과 도약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교해 보면 광주·전남지역은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이라는 당위성은 있었지만 이를 위한 협력과 개방적 의사소통 노력은 미약했다. 필자는 그 이유가 광주은행의 지역공헌에 대한 진실한 이유를 스스로로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펼칠 수 없다.

광주은행에 대한 지역공헌의 중요성과 양후 비전을 공론화하고, 광주·전남의 모든 역량이 집중화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개방

적 의사소통 속에서 함께 노력한다면 5000억 원 수준의 인수금액 마련은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광주은행 지역환원 과정을 통해 나타난 광주·전남의 무기력, 비전을 위한 열정의 상실, 대외에 협력하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협력의 결핍 등이 더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이는 누적된 정치적 폐쇄 경험과 역사와 가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일 수 있는데 지역문화로 굳어지기 전에 이를 막는 문화혁신이 필요하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중요한 진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 운동이다.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삶 전체에 대한 시민의 자배를 의미한다면 광주·전남은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노출된 소외와 무기력을 극복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주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일상화시켜 시민의 인권과 자부심을 일깨워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하고, 이를 광주정신으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불씨로 확산시켰으면 한다.

법조칼럼

서영호
해남지원 판사

공감 그리고 '판사짓'

얻어 사시고, 나머지 돈으로 나 또는 동생들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계약과정에서 실수를 하셔서 일부 걸어 놓았던 계약금 500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실 것 같아 상의를 하기 위한 전화였다.

말씀을 들어 보니 어머니가 전적으로 잘못하신 것 같아 첫 마디에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맞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네가 비록 판사지만 아직 세 상물정이나 부동산 관행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어머니 잘못이 명확한데도 계속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시니 학가나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아래서 말을 하니 낳았어야 되는데 아들놈 기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옛말이 딱 맞다", "아들내미가 판는데 창피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마"라는 강경적인 언쟁을 끝으로 전화를 끊게 되었고, 한동안 냉랭하게 지내게 되었다.

이후 자꾸 뭔가 짐작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이들이 명색이 판사인데 미리 상의도 안 하시고 당신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나한테 네가 뭘 모른다고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보다는 부모님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께 전화할 마음을 꾹 누르고 버텼다. 계속 그렇게 짐작하게 지내던 어느 날 문

득, 돈 1000원도 아까워하시는 어머니께서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즐지에 놓게 되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한동안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자책하시고, 속상하셨을 텐데 잘 해주려던 마음도 모르고 아들놈의 새끼로부터 오하려 첫마디부터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부터 들었으니 얼마나 더 열이 빤치고 화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필자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을까 생각해보니, 늘 가족들만을 위해 사시는 어머니에 대해 필자는 돈을 벌고 여유가 생겼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을 위해 사느라 거의 해드린 것도 없이 말로만 당신을 위해 사시라고 했던 미안함과 속상함, 그런 미안함과 속상함이 쌓이니 필자를 방어하기 위해 왜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시려고 그러냐고 적반하장으로 화와 짜증이 나타나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선생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궁지에 몰린 어머니께 단박에 엄마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해버린 것이다.

아마 어머니도 이리저리 알아보신 결과 당신이 어느 정도 실수하신 걸 알았을 것이다지만 계약금을 조급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의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 위로받고 속상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전화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공감과 위로를 기대한 어머니께

난, 공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판사짓'을 해버렸던 것이다.

필자는 어머니께 드렸어야 하는 첫 마디는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계약금 돌려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를 위해서 잘 해보시려다가 잘못된 거고 우리 생활을 크게 훼손한 정도의 돈은 아니니까 더 마음 쓰지 말고 있는 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 사랑해"가 아니었을까.

소통과 신뢰의 가장 밑바탕은 결국 '공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사자가 많은 돈과 시간, 불편함이 예상되는 법원까지 올 정도라면 이미 다른 방법이나 빠, 연줄 다 동원해보고도 해결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이미 사건의 결말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지만, 그래도 판사는 내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 즉 공감해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유로 케이스 문제 풀들이 사건의 정답 찾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사건 뒤에 있는 당사자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정답을 찾아서 주시다고 만족하는 반면 당사자는 여전히 불만과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판사가 제시한 정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상식한 당사자로 취급받는 괴리가 생길 것이다. 마치 내가 어머니께 했던 '판사짓'처럼..

기고

정도영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

지구에서 더 오래 살아남으려면

위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후 얼마만한 세월이 흘러서 일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페트병과 스티로폼이 가정 쓰레기에서 차지하는 양이 만만치가 않았다. 쓰레기 운반차를 봐도 그랬고 쓰레기 매립장을 가봐도 온천지에 널린 것이 물고불긋한 페트병이고 하얀 스티로폼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하자는 정책이 채택되자 비판적인 보도가 줄을 이었다. 주부들이 애써서 구분해놓아도 수거할 때나 매립장에 가면 함께 섞여버리는 데 분리 배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페트병이 섬유로 부활해서 옷이나 이불이 돼 외국에 수출까지 되는 등 인류를 따뜻하게 하는 자원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스티로폼도 분리·수거되어 깨끗하게 모아지니까 재활용되어 주워올 아름답게 꾸미는 사진 프레임으로 변신하고 유통망을 맺으니 잘은 전화라고 생각

실에서는 광주거울로 거듭나기도 한단다. 지구가 탄생했을 때에는 탄산가스 대기 중에 너무 많아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되는 온실효과로 인해 물들이 살 수 없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서 빗물에 녹은 탄산가스가 바다로 흘러가 석회암이 되고 공기 중의 탄산가스 농도가 점점 얕아지면서 오늘날처럼 사람이 살기기에 적합한 기온이 되었다. 산업혁명이래 석탄과 기름을 괴롭게 쓰다 보니 공기 중의 탄산가스 농도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고 지구가 온도 오르게 되어 이전 인류가 400만년의 고ян인 지구에서 살기 어려워진다는 전망과 함께 대책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탄산가스가 공기 중에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것이 공기 중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오늘날 우리 씨가

는 에너지나 일상 생활을 끊치고 주성분이 탄소가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석탄 위에서 추위에 멀었던 조상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지혜를 빌어 우리도 주변에 지친 이산화탄소를 생활용품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공기 중에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버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온실가스도 조절되고 기후변화도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기술이다. 조상들이 석탄에 불을 붙이는 기술을 얻을 때까지 추위에 멀었던 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공기 중의 탄소를 골라내서 활용하는 기술을 발견할 때까지는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모든 것을 아끼는 길밖에는 없다.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는 것은 기술자들에게 기대하기 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아끼고 또 아끼는 길만이 인류가 대를 이어 지구에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기 바랍니다." 대출상담 광고였다. 요즘은 수법도 교묘해서 지역번호까지 찍어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이게 대출회사 광고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가족 친지 중 누구일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러나 보니 모르는 번호가 지역번호까지 찍힌 체 걸려오면 "이것도 대출 광고일 거야"하며 안 받게 되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전화를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사실 은행권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분들에

게 '무 방문! 전화상담만으로 대출 가능' '싼 이자로 바로 대출 가능'이라는 달콤한 말은 말 그대로 유혹이 될 수 있고, 그 달콤한 유혹 뒤에 돌아갈 수 없는 피해가 돌아옴을 생각할 때 이런 광고수법은 더욱욱 괴씸하다.

갈수록 대출광고 수법이 교묘해 진다고 하더니, 이렇게 한 번 전화해 끊고는 휴대폰 주인으로 하여금 '누굴까?' 내가 아는 사람인가?'라는 호기심을 이용, 대출광고 상담을 유도하는 악랄한 행위. 정부에서는 이런 대출광고 규제할 방법 없나?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인천동

갈수록 교묘해지는 대출광고 규제 없나

얼마 전에 전화가 한 번 울리더니 그냥 끊겼다. 전화번호를 보니 '055-36××-52××' 이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는 다 아는 사람들이라 전화가 오면 이름이 뜨는데, 이 번호는 내 휴대폰에 입력이 안 된 것으로 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았다. 처음에는 궁금한 영향을 안 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시

社說

대형마트 상생 차원에서 상도의 지켜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자체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종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는 판결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아마트와 롯데쇼핑·홈플러스가 광주 5개 구청과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물론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편법을 이용, 대기 입점하면서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최근 6년 새 전통시장 수와 점포 수가 각각 22곳, 2933개에서 7곳, 663개나 사라진 것도 때문이다.

유통 대기업들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한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준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영세상인들과 상생 차원에서 SSM의 편법 확장 등 무리한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

지자체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영세상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민 범죄 예방서비스 말 뿐이었다니

정부가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추진했던 치안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기 짱이다. 원활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부족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각종 범죄 위험에 서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의 한 분야로 마련한 'U-안심서비스'를 지난해 말 종료했다. '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U-안심서비스

▲미성년자와 여성 성인들을 위한 원터치 SOS 서비스 ▲112 긴급신고 앱 등 3 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었다.

정부와 경찰은 어린이와 여성에 포함한 노약자 범죄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안을 마련하느라 요란을 떨고 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구호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외면받기 일쑤다.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치안서비스를 재점검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은 정부를 신뢰한다.

無等鼓

문화는 달라도 동서양에는 같은 뜻의 고사성어가 많다.

2000년 전 그리스인 이솝이 지은 '이솝우화'와 조선 숙종 4년(1678년)에 나온 '순오기'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는 순오자는 흥민종이 15일만에 엎드렸다. 순오자는 흥민종이 여전히 불만과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판사가 제시한 정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상식한 당사자로 취급받는 괴리가 생길 것이다. 마치 내가 어머니께 했던 '판사짓'처럼..

여기에는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원터치 SOS 서비스도 아는 사람이 드물어 실질적 극히 저조하다.

이 서비스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대상자 1.8%만 가입해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경찰은 어린이와 여성에 포함한 노약자 범죄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안을 마련하느라 요란을 떨고 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구호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외면받기 일쑤다.